진관사 국행수륙재 입재…49일 대장정

칠재 동안 대덕 스님 법문, 회향선 종정 성파 대종사 법석도

어산 동희 스님 집전 하에 수륙재학교 스님들 설행

한국전쟁 정전70주년 맞아 전쟁 전몰자 등 영가 모셔

명상음악회, 지화 시연 등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전개


진관사가 9월 3일 국행수륙재 입재식을 봉행했다. 국행수륙재는 49일간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선시대 가장 큰 불교의식이었던 수륙재. 온 천지와 수륙에 존재하는 고혼 천도를 위한 600년 불교전통의식이 9월 3일 서울 진관사에서 다시금 설행됐다.

국가무형문화재 126호 지정 10년을 맞아 서울 진관사(회주 계호, 주지 법해)는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대자비심으로 꽃피우는 생명과 평화의 기도'를 주제로 49일간 국행수륙재를 펼친다. 입재가 진행된 9월 3일에는 800여 불자들이 모여 수륙재에 동참했으며, 해외에서 온 외국인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수륙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10년 뿐만 아니라 1953년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당시 전몰자들의 영가도 천도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를 증명으로,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이 재주로, 조계종 첫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이 어산으로 직접 집전했으며, 진관사 수륙재학교 소속 스님들과 신도회, 청년회, 어린이법회 학생들까지 한마음이 되어 수륙재를 진행했다.

수륙재 입재에서는 대웅전과 함월당, 명부전 등에 공양물을 올리고, 명종으로 입재를 알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영가를 맞이하는 시련과 영가에게 차와 국수를 대접하는 대령, 영가의 고단함과 번뇌를 씻기는 관욕 등이 이어졌다. 회주 계호 스님과 주지 법해 스님 등이 헌향과 헌다에 이어 배례하고 심대근 신도회장 등 신도들이 이어 잔을 올렸다.

영가 위패로는 특별히 이태원 사고 피해자,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 한국전쟁 전몰자 등이 모셔졌다.

신중작법에 이어 법사로 나선 前범어사 승가대학장 용학 스님은 '수륙재 공덕의 복전'을 주제로,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은 불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했다.

스님은 "〈화엄경〉에서는 악하고 못된 중생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은혜를 갚을지 모를지라도 보살 수행을 하는 우리는 그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 수륙대재에서 뭇생명을 천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은 이번 수륙재의 의미에 대해 "유주무주 고혼, 그리고 생명이 있는 생명이 없는 모든 영가님들을 모셔서 법식에 참여토록 하는 큰 의식"이라며 "올해는 특히 정전70주년과 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을 맞아 세계평화 뿐만 아니라 생명존중과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관사는 10월 22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함월당에서 수륙재를 연다. 수륙재 기간 초재(9월 10일) 봉명사 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 이재(9월 17일)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영진 스님, 삼재(9월 24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사재(10월 1일)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오재(10월 8일)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지운 스님, 육재(10월 15일) 조계종 前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이 법사로 나서며, 회향일인 칠재(10월 22일)에는 조계종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가 직접 법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월 3일에는 제19회 달오름산사음악회 '음악명상 콘서트'가 오후2시부터 진관사 마당에서 막을 연다. 또 10월 5일부터 9일까지는 진관사 지화장엄연구소가 주최하는 지화전시 특별전 '가피의 향기 꽃으로 피어나다'가 한문화체험관에서 열리며, 내방객이 많은 주말 10월 7일과 8일에는 지화 시연 및 체험도 가능하다.

봉은사 "생전예수재, 가장 불교적 의례"

9월 5일 입재…10월 23일 회향

원명 스님 "자리이타 실천" 강조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돼있는 '생전예수재' 49일 기도에 돌입했다.

봉은사는 9월 5일 경내 법왕루에서 생전예수재를 실시하고 49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주지 원명 스님은 입재 법문에서 생전예수재의 의미를 설명하고 "가장 불교적인 의례로 한국불교의 큰 틀"이라고 강조했다.

생전예수재는 죽은 뒤에 행할 불사(佛事)를 살아 있을 때 미리 닦아 사후(死後)의 명복(冥福)을 빌기 위한 불교 전통의례다. 고려시대부터 시작돼 조선 중기에 성행했다. 현존하는 문헌에서 최초로 기록돼있는 것은 조선 후기의 〈동국세시기〉이며 문헌 기록에서는 예수재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지금의 예수재라고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 기록된 경기도 광주 봉은사가 현재의 봉은사이며, 최초로 예수재를 설행한 도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봉은사는 2017년부터 생전예수재의 전승 보존을 위한 (사)생전예수재 보존회를 설립해 생전예수재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9월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입재식에서 원명 스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불자의 삶을 당부했다. 스님은 "생전예수재는 부처님 가르침인 수행과 회향을 실천하는 자리이타행"이라며 "보시하고, 지계를 잘 지키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을 닦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생전예수재 입재식은 법안 스님과 도피안 스님, 설호 스님의 집전으로 헌공의식과 시식으로 진행됐다. 영가에서 음식과 법문을 베푸는 시식의식에는 대중들이 동참, 아미타부처님 앞에 헌다하고 필연적으로 지은 악업에 대한 업장소멸을 발원했다.

봉은사는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49일 간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육바라밀에 맞춰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시식과 법문을 진행한다. 9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주제로 정진하며 10월 12일 목요일에는 택전점안의식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린다. 10월 22~23일에는 불교의례 전통방식으로 회향식을 봉행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동국대 팔정도 메운 '천진불' 함성

은정불교재단, 제15회 나란다축제

'범종을 울려라' 100여 명 참가

봉은사 오현수 군 대상 수상해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오자 물음표로 답을 대신한 아이들이 여럿 나왔다.

"오늘의 주인공, 나란다!"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드는 9월 첫 주말 오후, 동국대 서울캠퍼스에 천진불들의 함성이 가득 울려 퍼졌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과 조계종 포교원이 공동 주최한 제15회 나란다축제 현장. 축제를 대표하는 초등부 '도전 범종을 울려라'가 동국대 메인 광장인 팔정도에서 펼쳐졌다. 사찰별 예선을 거쳐 본 대회에 참가한 100여 명의 초등학생들. 첫 문제는 누구나 맞출 수 있도록 '삼보(三寶)'에 관한 내용을 출제했다.

"불교의 세 가지 보물은 불, 법, 승입니다. 이 중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정답은 O, X로 적어주세요."

아이들은 사회자의 문제 출제가 끝나기도 전에 서로 화이트보드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주최 측도 100%의 정답률을 기대한 첫 문제. 하지만 몇몇 아이들이 답을 X로 써내며 첫 탈락을 맛봤다. 한 여자아이는 대회를 시작하자마자 떨어진 게 마음 아팠는지 연신 눈물을 흘렸다.

탈락자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순조롭게 문제를 풀어가던 아이들은 주관식 일곱 번째 문제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몸의 다섯 부분을 바닥에 대고 하는 절의 명칭과 바닥에 닿는 몸의 부위를 적어보세요."

'삼배' '오체투지' '체투지' '배 · 다리' 등 다양한 오답과 함께 물음표만 적는 아이들도 여럿 있었다. 정답 '오체투지'와 '이마 · 팔꿈치 · 무릎'이 공개되자 곳곳에서 탄식이 쏟아졌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대거 탈락하자 분위기를 전환하는 패자부활전이 이어졌다. 많은 아이들이 문제를 맞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고, 문제를 맞힐 자신이 없는 아이들은 주어진 음악에 춤을 추며 기회를 얻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탈락자가 남은 상황. "패자부활전마저 실패한 우리 아이를 구하고 싶은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아이들이 아닌 부모와 스님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무대에는 3명의 스님과 5명의 아이 엄마가 올라 마찬가지로 춤을 추며 남은 아이들의 도전 기회를 얻었다.

예년이면 문제 15개쯤 대회가 끝났을 테지만 올해는 20개를 넘도록 결선 진출자를 가리지 못했다. 그렇게 2시간여가 지나 12명의 결선 진출자만 남은 뒤, 배점을 매긴 총 10개의 추가문제로 순위를 매겨 1위를 선정했다.

문체부장관상에 해당하는 대상의 영예는 봉은사 소속 초등학교 5학년 오현수 군이 안았다. 상금은 200만원이 주어졌다. 오 군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아빠에게 제일 고맙다"며 "1등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더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은 화계사 정재우 ·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정효현 학생이 받았다. 특히 조계사 소속인 최세연, 최세준 군은 형제가 함께 장려상에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대회에 앞서 "제15회 나란다축제를 위해 동국대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여러분은 우리와 부처님의 희망이자 주인공"이라고 인사했다.

이어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동국대는 여러분 같은 세상의 주인공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이라며 "좋은 추억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5회 나란다축제는 '범종을 울려라' 외에도 상월선원 안거체험과 걷기 순례, 불교교리 경시대회, 청소년 전통문화 한마당, 진학 · 진로 엑스포, K-댄스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풍경소리 "지하철 노후 게시판 교체"

9월 5일, 중간성과 발표

2281개 중 1187개 교체

"불특정 다수 포교 기여"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 목종)가 9월 5일 서울 사무실에서 '지하철 노후 게시판 교체 불사'의 중간 성과를 발표하며 불사 원만 회향을 위한 사부대중의 동참을 당부했다.

풍경소리는 1999년 9월 '지하철 게시판 불사'를 시작했다. 당시 서울지하철공사 1-4호선 112개 역에 448개에 불과했던 게시판은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전국 797개역 2281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게시판 포교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낡고 부서지거나 역사정으로 철거되는 등 보수와 보충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풍경소리는 게시판을 일제히 교체하는 불사를 계획했다. 2018년부터 2년간 기관과 438명의 개인 동참으로 약 1억을 모연, 지난해 9월부터 385개 역 1187개 게시판을 교체했다. 그러나 원자재 및 인건비가 상승으로 아직 412개 역 1094개 게시판에 대한 교체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때문에 풍경소리는 모연 목표금액을 2억으로 재상정하고 불자들의 동참을 독려, 2024년 6월까지 교체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내영 기자

동국대 생활풍수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

9월 1일, 동국대에 2000만 원 쾌척



동국대 행정대학원 내 생활풍수최고지도자과정 총동문회(이하 동풍 총동문회)가 9월 1일 동국대에 학교 발전기금 2000만원을 쾌척했다.〈사진〉

동풍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은 동국대 윤재웅 총장을 만나 동국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동풍 총동문회에 감사를 표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풍 총동문회는 2019년 발족 이후 동문 조직화에 앞장선데 이어 지난 4월 '제1회 풍수지리 세미나'를 열어 장묘문화 변화에 따른 생활풍수의 역할 등을 모색한 바 있다.

한편, 동풍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은 9월 8일 동국대 행정대학원 수석부회장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웹툰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 2 연재

카카오페이지에 5편 연재

감상평 남기면 경품 증정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스님, 문화사업단)이 웹툰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 2'를 제작해 9월 8일부터 카카오페이지에 연재한다.

이번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 2'는 다양한 계층이 한국불교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넷플릭스 인기드라마 D.P의 웹툰 원작자인 김보통 작가(스튜디오 타이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해 기대를 모은다.

웹툰은 총 5편으로 구성됐다. '아홉 개의 연못을 건너면 청년으로 변하는 백발노인(불국사)'와 천불천탑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다룬 '꼬끼오!(운주사)', 설악산 울산바위에 얽힌 세금 이야기 '지긋지긋한 바위세(설악산 신흥사)', '암호를 풀고 해탈의 길로 향한 부상병(건봉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불국사와 운주사 이야기는 무빙툰으로도 제작돼 눈길을 끈다.

문화사업단은 시즌 2 연재를 기념해 감상평 경품이벤트도 진행한다. 카카오페이지에 감상평을 남기면 1000여 명에게 템플스테이 체험권, 꽃살문 USB, 카카오페이지 캐쉬 등을 증정한다. 기간은 9월 8일부터 14일까지다. 김내영 기자

포교사단 제1회 포교수기 대상에 이석준

8월 29일 선정…대상 등 3편

9월 9일 19회 팔재계법회서 시상

제1회 포교활동수기 공모전 대상에 이석준(송운, 인천경기지역단 불교문화해설3팀) 포교사의 '연꽃의 네가지 덕과 같은 포교를 하리라'가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영석)은 8월 29일 서울 포교사단 본부에서 제1회 포교활동수기 심사를 열고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

원력상에는 강태윤(담덕, 대전세종충남 지역단 동부총괄 염불포교팀) 포교사의 '꽃향기를 남기고 갔단다'가 장려상에는 어윤식(혜도, 인천경기지역단 군13여주팀) 포교사의 '향기로운 세상을 위한 보현행원'이 차지했다. 심사에는 조계종 신도국장 윤성 스님, 고명석 조계종 미래본부 명상프로그램 연구위원이 공동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대상 '연꽃의 네가지 덕과 같은 포교를 하리라'는 하심하면서 교구 포교에 임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아내도 포교사로 적극 권유하면서 집안 식구들을 불자로 만드는 원력이 담겼다.

심사위원들은 "포교활동 공모전이기에 신행보다는 전법과 포교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면서 "한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연꽃을 피워내는 포교, 그 향기가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번지게 한다는 포교사들의 글과 마음이 오늘날 진정한 포교정신임을 일깨워 준 공모전"이라고 총평했다.

당선작은 포교사단 홈페이지(pogyosadan.org)에서 볼 수 있다. 시상식은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진행되는 '포교사단 제19회 팔재계수계대법회'에서 진행된다. 임은호 기자

봉선사, '제2회 큰말씀 겨루기대회' 연다

10월 8~9일, 개산 기념 교리경시대회 마련

지난해 개산을 기념해 첫 불교교리 경시대회를 개최했던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가 올해도 대회를 이어간다.

봉선사는 10월 8~9일 경내 청풍루에서 개산 1054주년을 기념해 '제2회 큰말씀 겨루기대회'를 연다. 불교교리를 주제로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이 대회는 지난해에만 300여 명이 참가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어린이, 청소년, 일반부로 구분해 대회가 진행되는데, 지난해 대비 상금을 높여 참가자들의 수준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금은 대상 기준 일반부 200만원, 청소년부 70만원, 어린이부 50만원이며, 총 상금은 670만원이다. 첫날인 8일에는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둘째 날인 9일엔 일반부가 진행된다.

출제범위는 부처님의 생애, 불교교리 전반, 봉선사 역사다. 전국의 불자 또는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가자는 당일 흰색 상의를 착용해야 하며, 일반부의 경우 참여 인원이 많으면 예선전이 치러질 수 있다. 윤호섭 기자